

풍력발전, 대관령에서 본격 가동

강원, 60억원 투자해 2MW 설치 ... 전력 4380MWh 생산 가능

대관령에서 2MW의 제2풍력발전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.

강원도는 대관령면 신재생에너지전시관에서 <대관령 제2풍력발전기 준공 및 모니터링실 개관식>을 갖고 가동에 돌입했다.

대관령 제2풍력발전기는 강원도가 2012년부터 60억원을 투자해 2MW로 건설했으며 2013년 4월부터 시험가동 및 상업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제2풍력발전기는 1년 동안 전력 4380MWh를 생산해 4인 가구 기준 670가구에 공급할 수 있으며 5억70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.

또 소나무 61만9000그루를 심는 효과로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되고 있다.

강원도 김상표 경제부지사는 “풍력발전단지를 지속적으로 건설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사용되는 전력은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10/11>